

2001년 9월 27일

그리스도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인간이 되사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데서 오는 우리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요청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말과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함으로 공동의 신앙을 선언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장소에서 미국장로교회는 신앙고백서에 있는 열 한 개의 신조, 신앙고백, 요리문답을 통해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신앙고백은 교회와 함께 나누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이 진술들은 확신과 행함으로 알려진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것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침서이다; 그 것들은 기독교 전통의 본질을 요약한 것이다; 그 것들은 교회로 하여금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그것들은 복음 선포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훈련시킨다. (규례서, G-2.0100)

신앙고백서의 포괄적인 증언은 교회를 이끌어 가고 가르치며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기독교신앙의 특별한 면을 주의 깊게 표현 할 것을 요청하는 질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며 성서의 독특하고도 권위 있는 증언을 조명하는 방법으로 신앙고백의 증거를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새로운 신앙고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와 신앙고백의 일관된 가르침에 대한 신실한 표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요소들을 다시 확인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증언을 새롭게 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장로교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장로교인들이 믿기에는 성서와 교회의 신앙고백의 경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혼동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로교인들이 이 논쟁에 대한 총회의 반응에 만족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총회의 입장이 만족치 않는다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13 차 총회 (2001)는 총회의 신학과 예배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장로교의 신학적 풍부성을 온 교회가 보다 잘 이해하는 일을 돕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신학과 예배부는 교회의 역사적 신앙을 여기에 간결 명료하게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분명한 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장로교인들이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전하여준 신앙을 재확인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초청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랑과 평화가 전체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 신학과 예배부

Joseph D. Small, Coordinator

Theodore A. Gill, Jr.

Eunice McGarrahan

Maartha Moore-Keish

Sheldon Sorge

Charles A. Wiley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이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요한일서 1: 1-4)

“예수는 주시다” 이 근본적 선언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이다. 성서와 우리의 신앙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생명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증언을 제공해주는 이 기본신앙을 확장시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깊이”는 이 간단한 해설의 범위를 뛰어 넘는다. 우리는 모든것을 말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있다.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신앙 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 분 삼위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자, 오직 그분만 우리는 예배하고 섬긴다”는 우리의 이해 안에 충분히 표현된다. 니케아 신조로부터 간추린 신앙고백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의해 그 신앙고백을 형성해 왔다. 시대를 따라 주의 식탁과 세례대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섭리와 언약의 역사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며 찬양해 왔으며 예수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행동을 감사에 차 기억하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를 간구하였다. 우리는 모든 장로교인들이 이 신조와 기도에 표현된 믿음을 말하고 살도록 초대한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에게 화해시키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이로서 화해의 사업을 성취하시려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분이다. 그는 자기 사명을 계속하시고 완성시키려고 성령의 힘에 의하여 교회 안에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관한 모든 고백적 진술의 기초가 된다. (1967년 신앙고백, 9.071)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니케아 신조 1.1)

우리의 신앙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흠에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신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앙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생명보다 죄와 죽음을 택하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도록 지시하시고 예언자들의 외침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한다.

은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 100:1-3)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신적인 본질을 상상하는 인간의 시도가 우리의 소원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일로 쉽게 나타 나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신 그 한분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자신을 알리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 1, 14, 18)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세기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한다. 하나님은 저 먼 초월의 세계에 가리워 계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충족한 계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에 대하여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유일하고 권위있는 증언을 한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락하고 복종한다. (1967년 신앙고백서 9.27)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니케아신조 1.2)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따를 길을 보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사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자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세우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하나님이며 빛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셨다. (니케아신조 1.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으며 병든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을 계속 나타내셨으며 지금도 우리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여전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한 지금도 함께 계시며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 분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이시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부족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15, 19-20)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심장이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넘은 보배이며 성경은 감사에 넘치는 지식과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풍성한 믿음으로 가득 차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화해사업은 하나의 신비로서 성경은 이것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묘사한다. 그것을 어린양의 희생, 자기양을 위하여 바친 목자의 생명, 제사장에 의한 속죄라고 부른다. 또는 노예를 위한 속전, 부채의 상환, 법적 벌에 대한 대리적 배상, 악의 세력

에 대한 승리라고도 부른다. 이것들은 한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며, 그 진리는 곧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깊어서 어떤 이론으로도 규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화해 사업의 중대성과 대가와, 그리고 그것의 확실한 성취를 나타내 준다. (1967년 신앙고백, 9.09)

예수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었다.” (고후 5:19) 세상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세상을 위해 예수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 나셨다.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고,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엡 1:10)

예수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구주시며 기다리던 참 메시아이시다. 이 예수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인류와 또 온 세계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구주이심을 우리는 가르치고 또 믿는다. 율법이 있기전이나 율법아래에서나 복음 아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모두 그분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으며, 아무리 많더라도 세상 끝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가르치며 믿는다.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077)

예수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시며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에게만 두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아무도 선함과 덕행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딤후 2:4)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하지도 않으며 믿음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소유하고 결정 할 것이 아니다.

내적 조명은 외적 설교를 배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어 그를 내적으로 조명하시는 바로 그분이 명령의 형식을 통하여

자기의 제자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인 루디아에게 외적으로 말씀을 설교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내적으로 열어 주셨다 (행 16:14). 그리고 바울이 그의 생각을 아름답게 발전시킨 후에, 로마서 10:17 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사역을 통하지 않고도 그가 원하시는 사람에게, 또 원하시는 때에 조명하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그의 권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 2 헬베타 신앙고백 5.006, 007)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인 성령님을 믿는다 (니케아신조 1.3)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모으셔서 감사에 찬 찬양을 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드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시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운전케 하시며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서로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의를 배양하고 진리를 알고 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 길을 보이도록 하신다.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서로 연합되어 있다. ... 그에 의해서 교회는 보전되고 증가되고 순화하고, 마침내 하나님 어전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54)

성령님의 능력은 전체 신앙공동체를 거룩하고 기쁨에 찬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각자가 보다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에 의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 1-2)

교회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위에 세워지고 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가 있는 교회의 교제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 할수있다. 우리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한다.

그리스도교회는 형제들의 모임인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전을 방편으로 그 안에서 현재 주님으로 역사하신다. 교회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의 모임으로서 죄가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과 복종을 가지고, 메시지와 질서를 가지고 증언해야 하는바, 곧 교회는 오로지 그의 소유라는 사실과, 오로지 그가 주시는 위안과 그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그의 지시를 따르며 살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발멘신학선언 8.17)

한주님 한 믿음

세례대 앞에 함께 모일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오도록 환영하심을 기뻐하신다. 한 세례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세례의 물은 장로교나 다른 어떤 특정한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으며 우리가 이 물을 통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축하하고 더욱 깊게하고 세상과 함께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모두 예수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가 되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 (유다서 20-21)